

보도시점 (전매체) 11.4.(화) 08:00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를 통한 서류감축, 시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목)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수)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쁘는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 구축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한다.

또한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일괄(원스톱)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한다.

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한다.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하여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 (추진기관) 기정원(「중소기업 통합지원플랫폼」), 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한유원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③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추진기관) 중진공, 소진공, 기보, 기정원, 창진원, 한유원, 신보중앙회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0~20쪽 분량의 사업 계획서 작성을 인공지능(AI)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하여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 (추진기관) 중진공, 소진공, 기정원, 한유원

④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관찰(모니터링)하여 제거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불법 중개인(브로커)이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 (추진기관) 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⑤ 시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팁스(TIPS)와 같이 벤처투자사(VC)가 선투자하고 추천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정부가 연계(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객관성 한계를 극복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협력(파트너)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TIPS, 억원/개사) ('25) 7,478/876 → ('26.안) 11,592(+55%)/1,200(+37%)
(딥테크 밸류업, 억원/개사) ('25) 70/50 → ('26.안) 84(+20%)/60(+20%)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억원/개사) ('25) 130/120 → ('26.안) 158(+22%)/140(+17%)
(AroundX, 억원/개사) : ('25) 530/360 → ('26.안) 600(+13%)/400(+11%)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히 빅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케이(K)-탑(TOP)’을 확산한다. 제조인공지능(AI), 기술개발(R&D) 등 혁신기업 지원사업의 기업평가 과정에 케이(K)-탑(TOP)을 적용하여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 (26년 적용) R&D 성과조사,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레전드 50+ 등 10개 사업

아울러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케이(K)-탑(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일괄(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이용권(바우처),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진수웅 (044-204-7420)
		담당자	사무관	김건영 (044-204-7470)
			전문위원	권오경 (044-204-7429)



참고

K-TOP 개요 및 '26년 평가 적용 지원사업

- (개요) AI 기반 평가모형을 탑재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기업의 혁신역량, ▲기술 사업성 및 ▲기술 원천성을 진단('25~, 시범운영 中)

* (명칭)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Korea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신규 기술·기업평가 모델 개요 >

기술평가 모형	개요 및 입력정보	
<p>기업혁신역량지수</p> <p>Tech-Index: A기업 70.5, B기업 59.3</p> <p>인프라: A 39, B 76</p> <p>투입: A 35, B 43</p> <p>활동: A 14, B 42</p> <p>성과: A 23, B 15</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 타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 	<p>입력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정량정보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일부 재무정보 (급여, 개발비 등)
<p>기술평가표준모델</p> <p>기술사업 평가등급: A기업 AA, B기업 BB+</p> <p>성장: 85.7, 위험: 70.5</p> <p>B기업 성장: 50.9, 위험: 63.3</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 ▶ 신속 보증지원 및 업력 초기기업 평가에 최적화 	<p>입력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정량정보 (R&D 지표 14개) ▶ 25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
<p>기술의 원천성평가모델</p> <p>· 파급력: A기술 77%, B기술 45%</p> <p>· 유사도 분포: 원천성, 독창성</p> <p>A기술, B기술</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DB 분석을 통해 기술의 핵심성, 독창성, 파급성, 부가가치 창출을 분석 ▶ 기술의 원천성 등급과 분석 의견 제공 	<p>입력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개요 → 핵심 키워드 추출하여 텍스트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 특허기술 군집과 비교·분석

- (활용) 중소기업 지원기관·금융기관은 기업 기술역량 평가자료로 활용, 개별기업은 자가진단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가능성 판단 등에 참고

* (플랫폼 제공 서비스) ①평가 입력정보 전자 연동, ②개별기업 자가진단, ③기업 집단평가, ④기업 평가정보 전송·열람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

□ '26년 평가 적용 지원사업

'25년 시험적용					
기관	지원사업		평가건수	도입방식	
기 정 원	기술	R&D 성과조사(최근 5년)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대응형*	484	참고자료
	지역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850	점수반영 (70%)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R&D		145	참고자료
		지역기업 역량강화 R&D		90	참고자료
		지역특화 레전드 50+		717	참고자료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711	참고자료
		시군구연고산업육성		-	-
	산학 연합회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20	참고자료
	기보	융자연계형 R&D(BIRD)		330	점수반영 (25%)
	합계	9개 사업 3,564건			

'26년 계획		
평가건수		도입방식
20,000		성과분석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313	참고자료
중소기업 유망기술 (소부장)	500	
900		점수반영 (70%)
235		참고자료
220		참고자료
717		참고자료
700		참고자료
500		참고자료
120		참고자료
'26년 예산 미반영		
10개 사업 24,205건		

* '26년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시장대응형 폐지